



2023 공동 임금협상 시작

지난 26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3년 공동 임금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공동협상 위임을 거부했던 MBC충북이 상견례 당일,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서울 본사를 비롯해 15개 지역사(포항 MBC 제외)가 이번 공동 임금협상에 함께 하게 됐다.

이날 열린 상견례에서 조합은 녹록지 않은 외부 환경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임금협상을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게 임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부당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탄압에 맞서는 상황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고통분담하면서 MBC를 지켜왔다”면서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도적 보완 등이 뒷받침 돼야 이 같은 주인의식이 지속 가능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찬 MBC본부장은 먼저 올해 공동협상이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공동협상 체계 유지에 경영진이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공영방송 MBC의 경쟁력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MBC 전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았는데, 그에 대한 회사의 평가와 보상은 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언젠가부터 ‘기본급 동결’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고, MBC의 임금 조건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구성원의 선함에 기대 제대로 된 보상을 미루지 말고,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사측도 MBC 구성원들이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고통분담에 노력해왔다는 점에 공감하며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자고 밝혔다. 안형준 사장은 “상생의 노사 관계가 MBC의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노사가 상호 이해하면서 MBC와 MBC 구성원들을 위한 최적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올해 임금협상이 예년보다 다소 늦어졌고 외부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는 만큼, 밀도 있고 속도 감 있게 교섭을 진행하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전 지역사를 포함해 올해 경영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조합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기본급 4.5% 인상!

4.5일제 전면 도입!!

지난 20일,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와 본부 대의원 회의를 통해 2023년 공동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조합은 상견례에 이어 열린 실무교섭에서 올해 기본급 4.5% 인상과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합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먼저 기본급 4.5% 인상은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 올해는 3.6%를 예상했다. 지난해 공동 임협에서 기본급을 동결한 만큼, 지난해와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8.9% 정도는 인상해야 실질임금 하락을 막을 수 있지만, 적자가 예상되

는 경영 상황을 고려해 기본급 4.5%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합은 또 현재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시행하고 있는 4.5일제를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된 격주 4.5일제가 어느 정도 안착됐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만큼 이를 전면 확대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자는 차원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4.5일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시간당 실비 보상액을 본사와 지역사 동일하게 11,000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찬 본부장은 “이번 조합 요구안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근로조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칙”이라고 강조하며, “사람이 전부인 회사에서 비용만 줄여서는 경쟁력을 찾을 수 없다.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사측은 아직 올해 실적이 잠정 집계되지 않았고, 격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경영적 평가도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회사의 교섭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조합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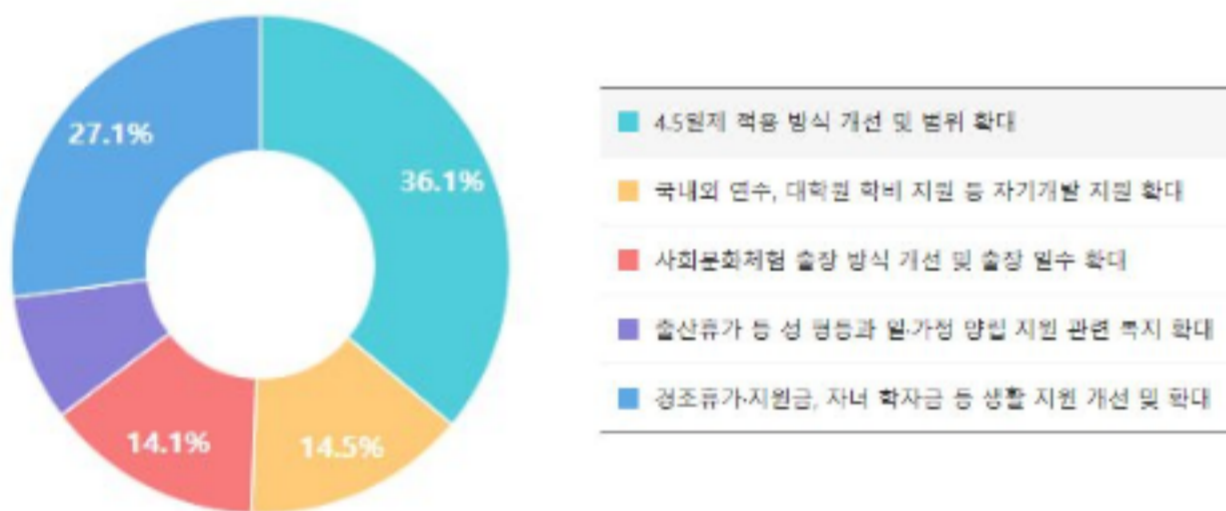
"4.5일제 적용 범위 더욱 확대해 달라"

조합은 지난 10월, 조합 창립기념일을 맞아 <복지 제도 만족도 및 개선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MBC본부가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하면서 향후 진행될 임금 협상을 비롯해 사측과의 교섭에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더욱 명확히 듣고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524명이 참여해 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객관식 응답 외에도 주관식 의견으로 근로조건·복지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은 이번 설문에 응한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흘려보내지 않고 교섭을 통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4.5일제 확대' 요구 가장 많아

향후 교섭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 질문에 조합원들은 '4.5일제 적용 방식 개선 및 범위 확대'(3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 격주 4.5일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였다. 선택근로, 재량근로 등 근로 방식과 부문별 특성을 감안해 보다 효과적인 적용 방식을 도출해 달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경조휴가·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 생활 지원 개선 및 확대> 역시 27.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한 물가인상 등으로 조합원들의 생활물가가 상승한 만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전적 지원에 대한 수요로 풀이된다.

"향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섭하면 좋겠는가?"



만족도는 '사회문화체험 출장', '4.5일제', '육아휴직' 순

현재 MBC 사내복지 제도 중 가장 만족하는 제도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2개 복수 응답)에는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사회문화체험 출장'(84.5%)을 꼽았다. 격주 4.5일제 역시 58%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문화카드(복지포인트)를 꼽은 조합원도 절반(46.6%)에 가까웠다. 반면 국내외 연수(5.7%), 대학원 학비 지원(5.2%)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중에서는 육아휴직(62.8%), 직장 어린이집(39.9%)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생활 지원 및 편의> 관련 제도에서는 통신비 지원(46.4%), 사내 대출(33%)이 높은 호응을 얻었지만, 콘도 시설을 꼽은 조합원은 3.6%에 그쳤다.

"MBC 사내 복지제도 중 가장 만족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2개 복수응답 가능)

사회문화체험 출장	84.5%
격주 4.5일제	58.0%
문화카드(복지포인트)	46.6%
국내외 연수	5.7%
대학원 학비 지원	5.2%

새롭게 도입된 복지 만족도 높아

조합은 올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복지제도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조합원들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에 대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격주 4.5일제 도입'(매우 만족 42%, 만족 43%), '문화카드 포인트 인상'(매우 만족 54.6%, 만족 40.3%), '배우자 출산 휴가 및 본인 결혼 휴가 확대'(매우 만족 34.2%, 만족 57.8%), '출산 및 입양 지원금 확대(매우 만족 33.4%, 만족 57.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구순 축하금 신설'(매우 만족 41.4%, 만족 50.8%), '창사기념일 대체휴일 지정'(매우 만족 67.2%, 만족 30.7%) 등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떻게 조사했나

설문은 지난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서울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당시 조합원 1070명 중 52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관 끝에 다시 확인한 투쟁과 연대의 힘

MBC충북 한기현 사장 규탄 투쟁을 마무리하며



기고

이지현 조합원
충북지부

찬가지였습니다. 조금은 '해봤자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력감을, 한목소리로 외치던 구호가 깨뜨려 주었습니다. 힘든 걸 알지만 그래도 맞서는 선배들의 모습에서, 무릎을 내주고 기꺼이 108배에 나선 선배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준 그 힘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94%가 임원 중간평가 기명 동의에 참여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함이 설치되기도 전에 먼저 와 기다렸습니다. 조합원이 보여준 행동과 결과는 사측의 협의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통임협 위임을 얻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사측이 제시한 퇴직금 단수제를 이유로 '이긴 게 맞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주었고, 네트워크의 연대를 지켜냈습니다. 승리라 부르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싸움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충북뿐 아니라 어느 지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가겠습니다. 다시 연대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후배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쟁에 힘을 보태주신 본부노조와 전국 16개 지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MBC충북 한기현 사장 규탄 투쟁 일지

- 1106 MBC충북 공동 임금협상 위임 거부 공문 발송
- 1124 충북지부 성명 "한기현 사장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즉각 공동 임협권을 위임하라."
- 1130 충북지부 및 수석본부부장 한기현 사장 규탄 투쟁 시작
- 1205 MBC본부 16개 지부 명의 성명 "MBC충북을 망가뜨린 한기현 사장, 남은 건 중간평가뿐이다"
- 1207 MBC본부 집중 집회 및 충북지부 조합원 총회
- 1208 충북지부, 한기현 사장 중간평가 발의
- 1214 한기현 사장, 퇴직금 단수제 협상 의사 및 조합안 전달 요청
- 1219 MBC충북 노사, 퇴직금 단수제 합의
- 1226 MBC충북, 공동 임금협상 위임

오랜만의 집회였습니다. 매서운 바람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MBC충북 로비로 한달음에 모여준 본부노조와 전국 16개 지부의 힘은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그중 가장 낮은 연차로서 느낀 건 고마움을 넘은 감정이었습니다. 입사 이후 사측은 '안 힘들다' 한 적이 없습니다. 매해 위기였고 비상이었습니다. 그 속도라도 늦춰보자며 임금을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 힘들다' 했습니다. 희망은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단지 경영 상황만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기사에 대한 이해, 제작물에 대한 상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취재하고 쓰는 과정이 언젠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무기력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임원 중간평가 기명 투표를 진행할 때도 마

'방송장악 앞잡이' 김홍일·류희림은 당장 물러나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행태가 말 그대로 가관이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도 모자라, 방송의 '보'자도 모르는 검사 출신 김홍일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방송을 조폭 잡듯 때려잡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친·인척, 지인을 총동원해 '청부 민원'을 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에 징계 칼날을 가차 없이 휘두르고 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송의 독립과 자유는 철저히 짓밟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이고, 비극적인 민낯이다.

조폭 잡듯 MBC 장악?...김홍일 지명 철회하라

김홍일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느 것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인물이다. 아무리 인사를 제멋대로 하는 정권이라도, 검사 출신 말고는 믿지 않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 왜 그가 방통위원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 단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한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지명 이유가 이렇게 구차하고 성의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김홍일 지명이 '존경하는 검사 선배'에게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준 차원으로 치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 정권에게 방송은 장악하고 억압하고 통제할 대상이며,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면에서 검사 생활 대부분을 조직폭력배 수사에 앞장섰고, 이명박의 BBK 연루 의혹을 눈감아주며 철저히 권력에 졸 섰던 김홍일은 정권 입장에서 방통위원장 적임자였을 것이다. 결국 방통위의 독립성은 커녕 권력의 앞잡이로서, 조폭 잡아넣듯 방송을 장악해 버리겠다는 것. 국회의 탄핵 절차에 쫓겨난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더 강력한 '법 기술자' 김홍일로 대체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27일 열린 청문회에서 그는 무책임하고 권력 굴종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는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식견은 고사하고, 언론에 대한 상식적 인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 서면 답변서에는 '공영방송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어서도 안 된다'는 과거 이동관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었고,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황당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으로 들렸다고 답하고, 비판 언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옹호에 급급했다. 법원이 부당함을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오히려 위법이 아니라며 법원 판결까지 부정했다. 어느 것 하나 방통위원장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무자격자가 바로 김홍일이다.

김홍일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장악할 첫 번째 목표는 MBC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본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시절 권한에도 없는 현장 조사까지 강행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방통위원장으로 행정처

분을 내릴 공산이 크다. 검사가 판사 노릇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방문진을 접수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내리꽂겠다는 계산이다.

사상 초유의 청부 심의...류희림은 사퇴하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은 너무나도 어이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와 관련해 MBC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16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100여 건의 민원이 류 위원장과 사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동생, 조카 등 가족은 물론 지인들까지 수십 명이 총동원됐다. 취임하자마자 긴급심의로 MBC에 과징금 징계 폭탄을 내리는 등 법과 절차, 관례를 모두 무시하며 편파 심의, 과잉 심의에 앞장선 것이 이런 지저분한 '청부 민원'을 통해서였던 것인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방심위 설치 목적을 완전히 짓밟은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류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더 큰 문제는 보도 이후 그의 대응이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라며 프레임을 바꾸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특별감사를 통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또한,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경우 징계할 것을 시사하며 언론사까지 겁박했다. 그동안 솔하게 밝은, 방귀屁 농이 성내는 식의 전형적인 위기 탈출 방식이다. 오죽하면 내부 직원들마저 반기를 들고 류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방송장악 앞잡이 김홍일과 류희림은 당장 물러나라. 더 이상 방통위와 방심위를 권력의 주구로 망가뜨리지 말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 당장은 권력의 힘으로 짓눌렸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 후과는 더욱 처절하게 돌려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서울지부

노사협의회

지상중계

"조직·프로그램 개편 전에 구성원 의견 들어야"

지난 26일, 올해 세 번째 노사협의회가 진행됐다. 조합은 사측으로부터 올해 경영실적과 내년도 경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MBC 구성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구 사안을 전달했다. 또 구성원들의 소통 기회를 넓히는 직급 연수 등과 구성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개발 프로그램 확충도 사측에 요구했다.

"일방적 조직·프로그램 개편 방지 대책 필요"

조합은 노사협에서 회사가 최근 진행한 조직개편에 대해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사측은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뒤늦게 조합 협의를 진행했고, 사실상 결론을 낸 상태에서 협회가 진행되다 보니, 각 부문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웠다. 조합은 조직개편이 구성원의 근로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사측이 결론을 내리기 전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편성위원회에서도 조합은 일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성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영 논리를 앞세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제작진의 목소리나 무시되거나, 편성 부문의 조율 절차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구성원과 소통 소홀로 이어졌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프로그램 개편 과정의 문제점에도 공감하며,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사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인재개발 프로그램 더욱 확대해야"

조합은 노사협에서 회사의 인재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사내 부문 간 소통이 힘들어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력직 사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차장급을 포함해 3년차, 6년차 등 다양한 조직활성화 연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준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사내 체육시설 설치와 콘도 시설 확충, 정년 퇴직자 건강검진 할인 혜택 제공 등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를 요구했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사측은 올해 약 2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밝혔다. 드라마의 선전과 아시안 게임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1차 노사협에서 예상했던 500억원 적자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측은 내년에는 광고수주 역량을 끌어올리는 등 수익개선에 집중해 1백억 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비용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드라마 등 제작 경쟁력 강화에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조합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MBC 본부 제 15기 출범 0321



15기 첫 노보 배포 (올해 총 7회 발간) 0405



노동절 행사 우리, 함께! MBC 0428



경찰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저지 0530



감시원 방문진 감사 규탄 피케팅 0710



2023 태어난 김에 여름 캠프 0724



이동관 OUT 전국 지부 피케팅 (~12.01) 0731



공정방송 토크쇼 언론야사 시작 (16회 방송) 0804



방동위 현장 조사 규탄 피케팅 0804



이동관 사퇴 촉구 만민 촛불집회 0818



고 이영마 조합원 4주기 추모전 0821



차기환, 김성근 저지 피케팅 및 기자회견 0905



직권남용 혐의 이동관 공수처 고발 0920



권악위 현장 조사 규탄 피케팅 1011



방송 3법 입법 촉구 릴레이 108배 1025



이동관 탄핵 공장투쟁 국회농성 (~12.01) 1117



방송법 개정 및 이동관 탄핵 촉구 총력투쟁 1120



이동관 탄핵 촉구 국민 행동의 날 행진 1127



MBC충북 공동협상 참여 촉구 집중집회 1207

2024년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2023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우리는 올해 함께 MBC를 지켜냈습니다. 혼돈의 시기, 한 치 앞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 15기 집행부가 출범했지만, 조합원들 덕분에 올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버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MBC에 대한 신뢰와 지지, 우리의 경쟁력까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합원 수는 15기 출범 때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방송장악 기술자가 쫓겨난 자리에 조폭 잡던 검사, 법 기술자가 옵니다. 내년 초 우리에게 다시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 단단히 뭉쳐서 함께 넘어내면 됩니다. 좋아하는 야구팀 더그아웃에 붙어있던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저는 우리에게서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 굳건히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깁니다. 집행부가 앞장서겠지만, 조합원과 함께 가겠습니다.

2024년,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싸움뿐 아니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도 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국민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임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물러섬 없이 협상하겠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호찬 본부장

찬란한 'MBC의 봄'을 맞이합시다!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만들어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른 '서울의 봄'을 보셨습니까? 44년 전 발생한 역사적 사실의 전달보다 그 속에 도사린 군부 쿠데타 세력의 무자비와 비열, 교활, 악랄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폭력으로 권력을 잔탈한 세력은 자멸하고 만다는 불변의 진리가 아닐까요?

모한 기시감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MBC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폭압이 1979년 12·12 사태와 무엇이 다를까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하고,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되면 온갖 구실을 앞세워 공영방송 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방송의 '방' 자도 모르는 검찰 특수팀을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소년가장이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앉히려 합니다.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법 기술로 무장한 검사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도한 정권에 의해 공영방송의 시계가 44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멈춰 되돌리는 싸움이지만, 결코 힘들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을 지켜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린다는 명분과 실리를 두루 갖춘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공정방송 수호 투쟁에서 한결같이 최전선에서 왔던 MBC 조합원 동지들의 저력과 똘똘함이 박힌 단일노조 DNA는 330적 왜군에 맞선 이순신 장군의 12척이 되어 승리의 점봉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엄혹한 지금 이 격동의 시기를 우리의 경험과 지혜, 인내로 당당히 헤쳐나갑시다. 그리하여 검찰 쿠데타를 이겨내고 다 같이 웃으면서 MBC의 봄을 찬란하게 맞이합시다!



윤태호 수석부본부장